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본회 회원 농림부 방문 대책협의

본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이 본회가 주장한 "ND와 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 돼지의 질병과 동일하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일 축산국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생산자들은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농림부는 농가에서 아직 예방접종 수준이 매우 낮아 시기상조로 판단되나, 생산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1년부터 예방백신 공급을 2회로 늘려 공급하면서 백신접종율이 80% 이상이 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한 ND박멸 종합대책에서는 백세미가 ND질병 확산의 주요인임을 인식하여 질병퇴치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란계 노계출하 어려움 돈육가격 하락 겹쳐

최근 돈육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자 육가공업체들이 노계처리 대신 돈육을 육가공원료로 대체하면서 노계출하 지연으로 채란업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산란노계가격은 최근까지 수당 400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심지어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노계처리도계장 가동율이 낮아지거나 일부 도계장에서는 가동이 중지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로 인해 노계를 처리하지 못한 다수 농가에서 환우에 참여하면서 다시 생산에 들어가는 금년 말 이후의 계란가격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닭고기 수입량 큰폭 증가

시장 점유율 18% 상회할 듯

금년 상반기의 닭고기 총 수입량은 35,256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총 54,689톤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말까지 약 65,000톤 이상의 닭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45,975톤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의 13%를 점유한 바 있으며 금년 65,000톤 이상의 닭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의 18%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산 가금육수입이 풀리면서 2~3년내에 수입 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육계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악덕상인 고발키로

후장기 등 고질적인 관행 사라지지 않아

최근 채란인들이 계란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악덕상인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키위한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본회에서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부 상인들간에 타업체의 거래처를 뺏는 악덕상인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큰 폭의 D/C가격을 조정하는 문서를 남발하는 상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후장기 등 계란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악덕상인을 고발키로하고 적정 처리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닭 뉴캐슬병 근절 강화대책 마련

종계·부화업 허가제로 강화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닭뉴캐슬병 근절 강화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있도록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을 보면 신고제로 완화되었던 종계 및 부화업을 다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중추사육업 및 백세미 사육농장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집중 검토키로 하였으며, 예방약 공급은 종계장에 대한 MG백신을 포함, 100%까지 대폭 확대하고,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와 후속관리 및 규제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따라서 본회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계란중량 등급 최종안 마련

왕란 68g 이상, 나머지 등급차이 8씩 균등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등급 기준(안)이 생산자, 유통상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마련되었다. 최종 확정된 등급(안)은 왕란 68g 이상, 특란 60g이상~68g미만, 대란 52g이상~60g미만, 중란 44g이상~52g미만, 소란 44g미만으로 왕란을 68g 이상으로 신설하였으며, 경란을 없애고 왕란 이하 8g씩 균일화하였다. 생산자들은 그동안 현재 국내소비 형태를 감안해 특란이하 6g씩 균일화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해 가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세계화추세에 역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최종(안)이 일단 확정되어 최종 공표를 앞두고 있다. **양계**